

중국소재 미보유 영상자료 조사를 위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

1. 출장개요

가. 출장목적

- 1) 우리 원 미보유 영상자료 조사발굴을 위한 사전협의
- 2) 중국 전매대학교 한국영화사 특강 초청(연구전시팀 정종화)

나.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 11월 2일(목)

다. 장소 : 중국 베이징

라. 출장자 : 2인(수집팀 민병현 팀장, 연구전시팀 정종화 팀장)

2. 출장결과

가. 10월 30일(수) 오후 : 중국전영자료관 업무협의

1) 접촉인물

- 가) 관장 (Sun Xianghui / 孙向辉)
- 나) 수집/카탈로그부장 (Siwei Lin / 林思玮)
- 다) 기획정보부 국제교류 담당 (Wenny Liu / 刘文宁)

2) 업무협의 내용

가) 원장서신 전달

- 한국영상자료원장 : 한국영상자료원 미보유 극영화 발굴을 위해 중국전영자료관 보유 필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원장 및 조사단의 중국 방문 의사를 전달
- 중국전영자료관장 : 금번 및 내년 방문을 환영하며, 향후 두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 기대

나) 중국 소재 미보유 영상자료 조사 관련

- 2005~2013년 중 중국전영자료관을 통해 수집한 한국 극영화 9편 리스트 공유
- 2013년 이후 업데이트된 중국전영자료관 필름자료 목록공유 협조 요청
: 기존에 발굴된 9편의 영화에 대해 현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 우선 해당 작품의 반출입 기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임
: 미정리 자료의 목록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우선 대상 자료는 중국영화 중심임. 아울러, 일제강점기 한국영화를 포함한 외국영화에 대한 목록정리 작업도 지속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목록 공유는 내부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향후 국제교류 담당자를 창구로 자료조사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함

다) 상영 및 기술교류 협의

- 금년 한국영화가 100주년을 맞았음을 인식하고 있고, 중국 역시 최근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이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과 긴밀히 협업하여 한국영화 상영회를 추진하길 요청함

중국제안	세부내용
시대별 주요작 상영	(1) 중국전영자료관 제안내용 - 금년 부산 상영 케이스(주요작 12편)처럼 시대별 대표작을 북경영화제(4월 개최)에서 상영 희망 - 상영 시 영상자료원 스태프 초청 및 GV 등의 행사 추진 ※ 검토필요 - 한국영상자료원의 적극적인 개입(저작권 허가 + 저작권료 지불 등)을 희망 -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추천사유를 포함한 상영리스트(안)를 선 제공해줄 것을 요청
복원작 상영 교류	(1) 중국전영자료관 제안내용 - 한국의 고전영화 복원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이를 중국 내에서 알려지길 희망, 금년/내년 복원작품 중 북경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 (타영화제에서 상영되지 않은 최초공개 작품 선호) - 중국 내에서도 디지털 복원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 이에 한국과 복원 관련 테크니션들의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면 함 (2) 한국영상자료원 답변 - 우리 원 발굴복원전(5월) 시 중국 복원작 상영 가능하며, 한국 복원작은 복원일정, 대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내부논의 후 재협의 가능 - 양 국 주관 복원교육 및 국제심포지엄 시 테크니션 및 관련자 초청이 이루어지길 희망

라) 기타

- 한국영상자료원 웹사이트 벤치마킹 중, 온/오프라인 서비스 등 자료활용 및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한국영상자료원을 모델로 다양한 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수집/카탈로그링부는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수집], [정보화], [홍보]임. 우리 원과 마찬가지로 중국전영자료관 역시 러시아, 독일 등지에서 미보유 영상자료 조사수집을 추진 중(러시아에서 초기 중국 극영화 및 영상자료 발굴)

나. 10월 30일(수) 오후 : 중국전영자료관 기관견학

1) 비필름보존고 : 2018년 우리 원 담당자(보존관리팀 권영택, 조성민) 견학내용과 동일

2) 디지털복원실

- 가) 디지털화 인력은 20인이며, 대부분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 원처럼 현상소나 후반업체의 경력을 기반으로 복원파트에 입사한 직원은 없고 대부분 신규로 입사하여 자료관 내에서 업무를 배우는 중

나) 1년에 디지털 스캔은 2,000캔(대략 200편), 디지털 복원은 4K 4~5편, 2K 30여 편 수준으로 추진 중

3) 극장

가) 전영자료관 내 3개관(별관 1층)을 운영 중이며, 1-2관은 상설상영관, 3관은 세미나 등 교육 실로 운영 중

나) 매주 월요일은 휴관, 화요일~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저녁시간에만 상영. 매주 화, 수요일은 중국영화를 상영하고 그 외 요일에는 국내외 고전, 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 중

다) 유료상영 중이며, 1회 관람 당 3,000원 내외이며 일반 개봉관에 비해 저렴(일반 개봉관의 경우 10,000원(3D 개봉영화는 15,000원))

4) 연구(China Film Art Research Center)

가) 중국전영자료관은 1982년부터 부설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년에 한번 씩 신입생을 모집하다가 2010년부터 매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음. 북경 소재 다른 대학(북경대학, 북경전영학원, 전매대학 등)의 대학원 영화과 과정보다 훨씬 고급 인력이 선발되는 편이며, 영화사, 이론, 평론, 창작 각 분야 30여명을 선발함. 다른 대학보다 연구·창작 자료의 접근성, 실제 업무 체험(특히 영화제 운영, 프로그래밍, 연구, 카탈로깅 등 업무 보조) 등의 장점이 있어 입학 경쟁률이 상당히 높음.

나) 영화사 전공의 경우 매년 3명 정도 선발하며, 졸업 후 대학 교원으로 진출하거나 대부분 중국전영자료관에 입사함. 최근 박사 과정도 설치함. 포스트닥터 과정도 운영 중이며, 이는 다른 대학원 박사졸업자 중에서 선발함.

다) 현재 중국전영자료관 직원은 300여명이며, 조직이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부설 대학원 졸업 인력이 중요하게 활용됨. 3년간의 전문 교육을 거쳐 필름 아카이브에 채용하는 바람직한 인력 채용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관내 영화도서관의 경우 현재 리모델링 중이며 2020년 재개관 예정임. 도서관(퍼블릭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미보유 영상자료 조사는 진행하지 못함.

다. 10월 31일(목) 오전 : 중국전영자료관 업무협의

1) 접촉인물 : 수집&카탈로깅부 사단(沙丹) 차장

2) 업무협의 내용

가) 10월 30일 자료조사 관련 업무협의 내용 공유 및 협조 당부

나) 한-중 초기영화 및 동아시아 영화 네트워크 연구 제안

- 사단 차장은 중국 전매대학과 중국전영자료관 대학원 영화사 전공을 졸업한 후 자료관에 근무 중. 영화평론 활동뿐만 아니라 중국 초기 영화사 연구자이며, 최근에는 한국과 홍콩, 대만과의 합작영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한-중의 공통 연구 주제인 상해파 영화인 자료 및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나눔. 향후 동북아시아 국가의 영화사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비교영화사 연구 심포지엄 개최 제안

다) 김기영 감독 상영회 제안

- 중국에서 일본 영화작가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고, 일본감독 특별전이 꾸준히 추진되었음. 최근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특별전이 있었으며, 총 70회를 상영하여 한화 기준 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함(도호 영화사 등과 직접 컨택하여 판권을 구입하였으며 판권료로 1억을 지불하여 실질 수익은 1억 원이었음)
- 중국 내에서 꾸준히 봉준호, 이창동, 홍상수, 박찬욱 등 한국 영화작가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기생충>이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김기영 감독에 대한 언급을 하여 한국 고전 감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임
- 북경영화제(혹은 중국전영자료관의 자체 상영관)에서 김기영 감독 특별전을 추진했으면 함. 이에 대한 한국영상자료원의 검토와 협조를 요청

라. 10월 31일(목) 저녁 18:00~22:00: 전매대학교 한국영화사 특강(1회차)

- 1) 강의주제 :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 지도그리기 및 조선영화 발굴의 의미
- 2) 강의대상 : 중국 전매대학 대학원 영화이론 전공(약 80명)
- 3) 강의내용 : 초창기 한국영화 역사를 소개한 후 중국전영자료관에서 발굴한 영화 <수업료>의 해설 상영 및 질의응답 진행

마. 11월 1일(금) 오전 : 베이징국립영화박물관 견학

- 1) 1년 6개월 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9월 말 재개관
- 2) 관람료 : 무료 (단,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해야 관람 가능)
- 3)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유랑지구>(2019) 등 최근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의 기획전시가 진행되고 있음

구분	주요내용
1층	- 기획전시실(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기념 전시 진행 중) - 영화관
2층	- 초기, 혁명기 영화 전시
3층	- 뉴에이지, 대안영화, 뉴스/다큐영화, 과학/교육영화, 홍콩/대만영화 전시
4층	- 필름 레코딩, 편집, 아트 레코딩 등 영화원리, 기술 전시

- 4) 전시실 : 총 21개 전시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00 평방미터의 규모임. 2~4층까지의 전시는 하나의 테마(A century of history, a Century of glory)로서, 기본적으로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고 각각의 섹션별로 감독/배우 코너가 마련되어 있음.
- 5) 영화관 : 총 6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봉영화를 상영하는 일반극장 (이중 1개관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IMAX 영화관으로 가로 27m x 세로 21m의 스크린으로 되어 있음)

바. 11월 1일(금) 오후 13:00~17:00: 전매대학교 한국영화사 특강(2회차)

- 1) 강의주제 : 김기영 감독의 영화세계
- 2) 강의대상 : 중국 전매대학 대학원 영화제작 전공(약 30명)
- 3) 강의내용 : 김기영 감독의 필모그래피, 신상옥·유현목 감독과의 비교 및 <하녀> 연작의 특징을 소개한 후, 영화 <하녀>의 장면 해설 및 질의응답 진행

사. 11월 1일(금) 저녁 18:00~22:00: 전매대학교 한국영화사 특강(3회차)

- 1) 강의주제 : 1990년대 이후 한국영화의 흐름 및 봉준호 감독의 영화세계
- 2) 강의대상 : 중국 전매대학 대학원 영화제작 전공(약 100명)
- 3) 강의내용 : 현대 한국영화의 경향과 이슈,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 후, 영화 <괴물>, <기생충>의 장면 해설 상영 및 질의응답 진행

첨 부 1. 관련사진

2. 항공권 티켓 및 출입국 기록 사본(별첨).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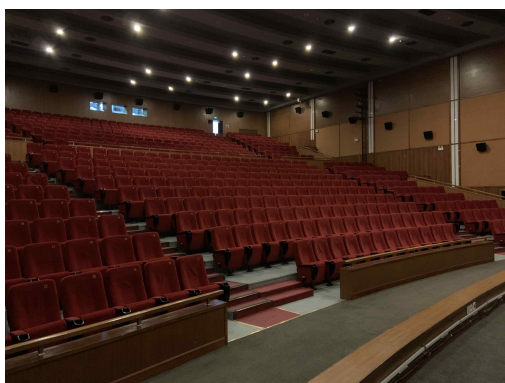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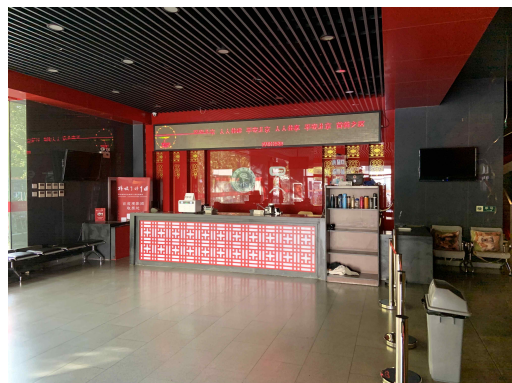
중국전영자료관 업무협의 (자료관 입구)



수집&카탈로그부 사단(沙丹) 차장 업무협의



중국전영자료관 극장(1관)



중국전영자료관 극장(로비)



중국전매대학교 한국영화사 특강(1차)



중국전매대학교 한국영화사 특강(1차)



베이징영화박물관 전경



베이징영화박물관 1층 입구



베이징영화박물관 전시실(1)



베이징영화박물관 전시실(2)



베이징영화박물관 전시실(3)



베이징영화박물관 전시실(4)



베이징영화박물관 전시실(5)



베이징영화박물관 관람티켓



중국전매대학교 한국영화사 특강(3차)



중국전매대학교 한국영화사 특강(3차)